



지역불교 이끄는 스님들

간화선 증흥의 대표 선지사

혜국 스님

충주 석종사 선원장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사. 제주 남국선원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선수행 지도를 해오면서 조계종 수행가풍을 잇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식을 하며 장좌불와(長坐不臥)했고, 성철·구산·경봉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대승사 불암사 칠불사 도성암 등에서 정진했다. 20년 전부터 석종사 불사에 뜻을 두었던 스님은 3년 간 대웅전, 요사채 등 불사를 추진, 마침내 지난 5월 충청불교계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의 문을 열었다. 내년에 스님 선방인 금봉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원이 완공되면 직접 참선 지도에 나설 계획.

재소자 포교에 각별한 노력

경우 스님

충주 신흥사 주지
한국불교해동종 종정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 40년을 한결같이 지역불교를 지켜 온 충주불교의 아버지 경우 스님. 1987년 충주사암연합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사암련 고문을 맡아 헌신하고 있다. 특히 경우 스님은 재소자 포교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과 노력을 쏟아왔다. 15년째 청주여자교도소 종교위원을, 5년 전부터는 대전지방교정청 종교위원을 맡고 있으며, 20여 년 동안 충주소년원 종교위원, 충주교정협의회장, 전국교정협의회 중앙위원 등을 지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현재 한국불교해동종 종정으로 있다.

약수 공급으로 시민에 각광

정관 스님

충주 미륵대원선원 원장
선학원 총무이사



충주 불자들은 정관 스님이 이곳에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수행력, 행정능력, 포교 마인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명실공히 충주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좋은 물을 혼자서는 마실 수 없다며 1997년부터 미륵대원선원에서 나오는 약수를 매일 5톤씩 하루도 빠짐없이 시내에 마련한 포교당에 실어 날라 지역민들에게 공급해왔다. 정기적인 법회를 통해 신도교육과 포교에도 매진했다. 선학원에서는 총무이사과 중앙선원 주지를 맡아 행정과 수행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선학원에서는 수행과 실무를 겸비한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도제양성과 석좌대웅전 불사에 전념,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지역 발전에 '개인' 버린 스님

의천 스님

충주 철곡사 주지
충주 사암련 회장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천 스님이 그렇다. 4년 전 사암련 회장을 역임한 뒤 물러났지만 자기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스님을 지역불교계는 그냥 두지 않았다. 충주불교를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보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선봉에 섰다. 자타가 공인하는 충주불교의 핵심. 중앙탑돌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했는가 하면 사암련합회 합장단을 창립하는 등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충주 세계무술축제 위원, 충주 구치소 교화위원장, 군부대 지도법사 등을 맡아 지역과 포교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불교문화로 '중원의 발전' 견인

충주 우륵문화제·중앙탑탑돌이 지역대표행사 음성 교통요지 포교중심 부상

충북 충주·음성

8월 31일 밤 11시. 충주의 밤은 빨간 불을 켜 신자들이 뒤덮여 있었다. 20여개가 넘는 불은 신자들이 유난히 크고 많아 보였다. 인구 22만의 충주. 정확한 교회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 수로만 본다면 기독교세가 우세해 보인다. 하지만 누라 뭐래도 충주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불교'다. 충주는 삼국시대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중원문화권을 대표하는 곳. 충주의 130여 사찰들은 선조들이 이룩했던 찬란한 불교문화를 되살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불교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충주의 대표적 축제인 '우륵문화제'에서 진행되는 중앙탑 탑돌이 행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중앙탑 탑돌이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지역의 각급 기관장 등을 포함한 지역인사 170 여명으로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하는 한편, 중앙탑 탑돌이에 10바라밀의 의미를 함축시켜 법제도를 도는 의식으로 탑돌이 행사를 진행해왔고, 결국 충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암련합회는 이번 기회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 받겠다는 각오 아래, 올해 행사는 10월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개최, 국제무술축제(10월1일~7일)와 전국제전(10월8일 개막)이 열리는 기간에 탑돌이를 선보이며 국내외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사찰들마다 고유의 색채를 다듬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황야산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미륵대원선원과 미륵사지세계사는 아름다운 산수와 사지(미륵대원터, 미륵사지)를 품고 있는 특성을 살려 역사에 남으면서도 참배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불사를 추진 중이다. 충주의 대표적 도심포교당인 우암정사는 어린이 포교에 주력하고 있고 미륵대원선원 충주포교당, 창용사, 삼중사 등은 합장단을 운영하면서 불자들의 수행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대웅전 낙성법회를 가진 석종사가 내년에 출·재가자의 수행을 위한 참선 전문도량을 열고 본격적인 참선수행 확산과 포교에 나서게 되면 충주불교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머지 않아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교통요지로 떠오르게 될 중



음성 광명선원은 8월30일 백중법회에서 합동전도제 의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열렸던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중앙탑 탑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

부권의 핵심 지역. 음성불교가 상당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명선원을 비롯한 몇몇 사찰들이 있다. 음성불교를 대표하는 광명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포교 1번지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회만도 정진법회, 요전법회 등 10여 개나 되고, 활동 중인 신행회도 청·장년층 신행회와 충주지역, 이전·여주지역 신행회 등 7개에 이른다. 게다가 지역의 초·중·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봉사단체인 한사랑회는 8년째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돕기 등의 활발한 복지

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특히 음성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학생·청년법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주대와 서울여대 대학법회도 여는 등 불교인재양성의 산실로도 각광받고 있다. 용화사는 거사들의 모임인 반야회를 축으로 신도들의 활동이 활발하며, 가족단위의 수행을 장려하면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특색 있게 하고 있다. 또 화암사는 참선 프로그램을, 미타사는 비구니 선방을 운영하면서 지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충주·음성=한명우 기자



미륵사지 5층석탑과 석불입상

중원 미륵사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에 사각석등, 당간지주, 5층석탑, 3층석탑, 미륵석불입상 등이 산재해 있는 사지. 중원문화권의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불교 유적지다.

사지 바로 옆에 미륵세계사가 있고 문화유산해설사도 상주하고 있다. 충주호, 수안보온천, 수속정폭포 등의 관광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어 볼거리도 풍부하다. (043)848-3034

신흥사 법당 앞 미륵부처님 앞에 서면 충주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강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장관이 일품이다. 사찰 규모는 작지만 고려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찰. 16나한전에는 석불 4분이 모셔져 있다. (043)852-4261

미륵대원선원 대웅전에 들어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단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단청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미륵대원선원으로 가라. 단청에서 현장, 법당 문까지도 단청의 미가 스며들어 있다. (043)846-5945

창룡사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말 나옹 스님과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주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절. 충주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남산의 남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절에 이르는 숲길의 운치가 그만이다. (043)847-2702



가을경치가 아름다운 광명선원 대웅전

광명선원 파란 잔디 위에 펼쳐진 전각들, 나무 아래 벤치, 산신각으로 나 있는 자연미 넘치는 계단. 그 조화로운 한 복판에 서서 손을 뻗으면 금강이라도 맞닿을 듯한 하늘. 아름답다는 말조차도 부족한 곳. 이런 절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음성군 금강읍에 위치. (043)877-5000

'전방위' 포교활동 분주

혜국 스님

충주 우암정사 주지
삼륜종 부종정



어린이 포교와 복지에 대한 원력이 크다. 한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충주의 어린이 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불교유아유치원연합회를 창설하고 유치원 교재·교구를 연구개발해 보급하는 등 젊은 시절을 어린이 포교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주구치소 교화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12년째 한국불교노인복지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복지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지금은 노스님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들고 싶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삼륜종 6·7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4년 전부터는 부종정으로서 있으면서 종단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애중심이 남달라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중앙탑 탑돌이 재현 주인공

혜성 스님

충주 동가섭사 주지



7년 전 충주 사암련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중앙탑 탑돌이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고는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생각해 낸 것이 법제도를 따라 도는 형식을 10바라밀의 사상을 녹여내는 것이었다. 각 바라밀을 상징하는 절을 연구, 10바라밀을 의미하는 10가지 절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중앙탑 탑돌이는 이런 혜성 스님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불교문화재로 태어났다.

불사를 사랑하고 즐기는 '일꾼'

충주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 주지부임 1개월만에 미륵세계사를 둘러보게 변모시

덕관 스님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량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미륵사지를 참배하기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느라 하루가 짧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상조 좋은 미륵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 위로 뜨는 예쁜 둥근 달을 볼 수 있고, 또 부처님 일에 몰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매력이 느껴지는 스님이다. 미륵세계사를 충주의 최고 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는 열정아래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불교로 '고향포교'

음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화사를 창건해 20년 넘게 '고향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음성불교의 터줏대감. 생활불교를 강조하며 꾸준히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역민들과 가까운 강경도 있지만 친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포

강청 스님

음성 용화사 주지



교역역을 확대했다. 내년에 신도들의 수행공간인 설법전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이 끝나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작불사 성공사례 '귀감'

명안 스님

음성 미타사 주지



폐사지나 다름없던 곳에 대규모의 지장보살성지인 미타사를 일궜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전지를 여는 등의 포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비구니 스님 선방과 요사, 그리고 수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